

청소년 초기단계에서 범죄피해의 변화와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

정혜원** · 박성훈***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청소년 초기단계에서 연령에 따라 범죄피해의 경험이 어떠한 변화의 패턴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들에서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었던 개인성향 요인, 가족 관련 요인, 상황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르는 5년 동안 범죄피해는 감소하다가 정체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범죄피해가 연령에 따라 감소하다가 중학교 시기가 되면 정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범죄피해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초등학생들의 범죄피해 경험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범죄피해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의 초기치와 관련해서는 자녀양육태도와 비행친구와 일탈적 생활습관만이 피해초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피해의 변화율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비행친구, 자녀양육태도, 일탈적 생활양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인적 성향요인보다는 가족관련 요인이나 상황적 요인이 청소년 초기단계에서 범죄피해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주제어 : 청소년피해, 발달궤적, 잠재성장모형, 패널연구

I. 서론

지금까지 청소년비행에 대한 주된 관심은 어떤 청소년들이 왜 비행을 저지르는가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면서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

* 이 논문의 초고는 2009년 11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위해 준비되었다. 토론을 맡아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대구대학교 박순진 교수께 감사를 드리며, 논문을 심사해 주신 세 분의 『형사정책 연구』 논평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동의대학교 강사, 사회학박사(교신저자, womenj@hanmail.net)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범죄피해에 대한 조사가 여러 차례 수행되었고, 그 결과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청소년 범죄피해 연구들은 일차적으로 범죄피해 실태와 범죄피해 상황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범죄피해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들에서는 범죄발생의 상황적 요인에 주목해 왔다(노성호·이성식, 2003: 28). 그렇지만, 최근에는 전통적 범죄피해이론인 생활양식이론과 일상행위이론을 벗어나서, 비행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기광도, 2004; 노성호·이성식, 2003; 박순진, 2005).

이러한 연구들은 범죄나 일탈의 원인으로 설명되어 온 다양한 요인을 범죄피해의 요인으로 다룸으로써 단순한 피해율이나 피해상황만을 묘사하는 연구들에 비해 범죄피해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갖는 한계점 가운데 하나는 역시 횡단적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많은 경우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였던 범죄나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피해 경험에 있어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피해의 변화에는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¹⁾ 이 연구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피해경험이 연령에 따라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는지를 잠재성장모형(LGM)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언론보도나 공식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학교폭력피해는 학령이 어릴수록 피해규모도 크고 심각성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김준호, 1998). 따라서 초등패널을 통해 어릴 적 피해경험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종단적(longitudinal) 분석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경험의 발달궤적(developmental trajectory)에 대해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1)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가 생의 주기적(life-course) 관점에서 범죄피해 변화의 내용을 밝히려는 것인지, 범죄피해의 원인을 검증하는 일반이론적 입장인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견 논평자의 지적에 공감은 하지만,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보다 정확한 문제의식은 청소년 초기단계에서 피해경험의 변화가 선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피해의 시작과 변화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피해에 대한 개입프로그램개발과 실행에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초등학생들의 범죄피해가 연령의 변화에 따라 상승하고 하강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보인다 하더라도 피해의 변화에 있어 많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발달궤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경로에 있어서 다양한 개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피해경험의 일반적인 발달경로를 찾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 발달궤적에 있어 개인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개인성향 요인, 가족관련 요인, 상황적 요인을 중심으로 피해경험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개인성향 요인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and Hirschi, 1990)는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을 통해 범죄학의 양맥을 이루는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이론은 범죄가 단순하면서도 우연히 그리고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고전주의 범죄학의 입장을 따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범죄는 개인의 안정된 성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입장을 수용한다(이성식, 2005).

인간은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동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적절한 사회통제나 개인적 차원에서 억제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 수 있다(Reiss, 1951; Nye, 1958; Hirschi, 1969).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순간적인 만족 또는 충동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통제력(self-control)은 일탈 행위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기통제력은 어떤 사람이 “순간적인 유혹에 견디지 못하는 정도”(Gottfredson and Hirschi, 1990: 87)를 의미하며,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무신경하고, 육체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선호하고, 근시안적이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경향(Gottfredson and Hirschi, 1990; 90)”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낮은 자기통제력은 인생 초기의 부적절한 사회화에 기인하며, 꽤 안정적이고 확고한 편이다. 그리고 일탈이나 범죄행위 이외에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사행위’(analogous behaviors)도 설명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낮은 자기통제력이 다양한 유사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죄의 피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자기통제이론을 적용하였다. 이들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한다(민수홍, 2004; 민수홍·박영실, 2006). 왜냐하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신의 욕구를 손쉽게 즉각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위험한 시간과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행은 물론 피해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학교폭력피해 간의 관계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Matsui and Yukie, 1996; Owens et al., 2000), 민수홍과 유성렬(2003)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범죄피해경험이 높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2. 가족관련 요인

가족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제도이며, 사회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첫 번째 사회적 기관이다. 청소년들은 가족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와 행동규범을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가치와 행동규범은 그 이후 사회화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가족과 비행 간의 관계를 검증할 때에는 가족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의 구분이 중요하다(김준호 외, 2002). 구조적 측면에서는 부모의 부재(결손가정),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초점을 두며, 기능적 측면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애착)의 중요성, 부부 간 결혼만족, 훈육의 유형이나 정도에 초점을 둔다(노성호, 2005: 590).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의 크기 및 형태가 비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연구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준호·노성호, 1989; Free, 1991; Loeber and Stouthamer-Loeber, 1986; Rankin, 1983; Well and Rankin, 1986; Wilson and Herrnstein, 1985). 사실 가족과 비행 간의 연구에 있어서는 가족의 구조적 측면보다는 부모-자녀 간의 유대, 가족활동과 같은 가족의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김준호 외, 2002; 전영실, 2007). 많은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의 형태와 비행 간에는 미약한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족의 구조적 문제가 비행에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가족의 구조적 특성은 비행의 직접적 원인이므로보다는 다른 요인들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2)

실제로 가족과 비행에 관한 최근의 연구경향은 구조적 문제를 기능적 문제와 연결 지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에 비해 한 사람의 부모가 생계 및 자녀 돌봄을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하므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나 자녀의 생활에 대해 감독이 부족하기 쉽고, 이것은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정소희, 2009).

이처럼 많은 연구들에서 가족관련 요인은 청소년비행(가해)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가족관련 요인이 청소년의 피해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신희경, 2006; 이춘재·곽금주, 2000).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부족이 비행(가해)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부모의 즉각적인 대처 또한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양육방식이 범죄피해경험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모의 폭력적 양육방식은 대인관계에서 자신감 혹은 자존감을 결여하게 만들

2)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인 입장을 취하는 통제이론가들(Nye, 1958; Hirschi, 1969)은 부모-자녀관계 중에서도 애착, 존경, 관심 등 내적인 또는 간접적인 통제를 강조한 반면, 행동주의 심리학의 관점을 취하는 통제이론가들(Patterson, 1982; Patterson and Stouthamer-Loeber, 1984)은 양육태도, 훈육방식, 상벌 등 직접적인 통제에 더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허쉬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에서 강조하는 부모의 ‘간접 통제’(indirect control)와 패티슨의 강압이론(coercive theory)에서 강조하는 부모의 ‘직접 통제’(direct control)는 상호대립적인 주장이기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김준호 외, 2002: 232). 간접적인 통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통제로서 훈육의 일관성, 처벌의 강도 역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기광도, 2002; 김선애·김준호, 1995; Rankin and Kern, 1994; Rankin and Wells, 1990; Wells and Rankin, 1988; Wilson, 1980).

고, 폭력피해를 쉽게 용인하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친구들로부터의 폭력이나 가해에 대해 쉽게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 상황적 요인

힌델랑과 동료들(Hindelang et al., 1978)에 따르면 범죄피해의 가능성은 범죄자와의 접촉 및 노출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런 접촉과 노출은 개인의 생활양식(lifestyle)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생활양식은 개인 또는 집단이 나타내는 구조적 제약조건과 역할기대(role expectation)에 대한 적응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생활양식 이론은 개인의 생활양식이 “범죄자와의 접촉 및 범죄자에 대한 노출이라는 두 매개 변수를 통해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순진, 2005: 243)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³⁾

비슷한 맥락에서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 1979)은 한 개인이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는 충분조건, 즉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죄대상(suitable targets),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감시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세 가지 요소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수렴할 경우 약탈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⁴⁾

생활양식이론이나 일상활동이론의 논리에 따르면, 청소년의 생활양식이 일탈적 생활양식에 가까울수록 또는 그들이 적절한 범죄대상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수록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아쉽게도 이러한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⁵⁾ 다만 기존 연구들에서

3) 예를 들어, 남성은 가족의 부양자라는 역할기대가 있기 때문에 집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생활양식을 갖게 되는 반면, 여성은 가사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역할기대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힌델랑 등은 이러한 생활양식의 차이가 범죄기회의 노출, 범죄자와의 접촉가능성의 남녀 간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4)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역시 일상적 사회활동이 범죄에 대한 기회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생활양식이론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생활양식이론이 사회집단에 따른 범죄피해의 위험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일상활동이론은 시간에 흐름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Meier and Miethe, 1993: 470).

5) 이러한 연구가 많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경험적 측면에서 범죄피해이론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조사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며, 둘째로 이론적 측면에서 범죄피해이론은 청소년피해

는 ‘피해-가해 동일집단 가설’에 대한 검증은 통해 간접적으로 청소년들의 피해경험을 살펴보고 있다(기광도, 2004; 김준호, 1998; 박순진, 2005; 2006; Jensen and Brownfield, 1986; Lauritsen et al., 1991; McDermott, 1983; Singer, 1981). 이에 따르면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은 그 자신이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빈도가 높은 청소년은 동시에 여러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박순진(2005)의 연구에서는 비행적 생활양식, 피해경험이 가해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결과가 청소년비행에 있어 피해와 가해는 서로 중첩될 뿐만 아니라,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과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이 동일집단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연구(노성호, 2007)에서도 청소년들의 범죄행동은 범죄피해를 상당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청소년의 경우에도 일탈적 생활양식이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비행친구 역시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등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 따르면, 일탈행위는 친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되는 일탈행동에 대한 우호적 정의(favorable definition)의 표현이다(Sutherland and Cressey, 1974). 청소년의 경우 비행친구 집단에 속하여 그들과 어울려 다니는 청소년일수록 그들로부터 비행에 대한 우호적 태도, 구체적인 기술 등을 습득하게 된다(Akers et al., 1979; Burgess and Akers, 1966; ; 박현수·김준호, 2008).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이러한 비행친구와의 교제는 우연한 기회에 그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경험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행친구와 어울리는 청소년일수록 함께 비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혹은 서로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uritsen et al. 1991; 노성호·이성식, 2003).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볼 때, 청소년의 피해경험은 개인의 일탈적 혹은 비행적 생활양식, 비행친구의 유무, 범죄행동 경험과 같은 피해가능성이 높은 노출 요

를 설명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성인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피해경험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설이나 조작화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Korea Youth Panel Survey)』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 가운데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적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 일탈 행위, 여가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추적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하 초등 패널)을 사용하였다.

초등패널의 조사대상은 2004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전국(제주도 제외)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이다. 표집방법으로는 층화다단계집단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법에 의해 서울시·5대 광역시·시군(도)의 지역별 주별로 인구비율을 산정하여, 각 지역별주별로 모집단 비율에 맞게 대상 학교를 무작위로 표집하였다(이경상 외, 2005).

2. 변인의 측정

가. 종속변인

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6가지 종류의 피해를 ‘피해경험유무’와 ‘피해빈도’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⁶⁾ 이 연구에서는 6가지 종류의 ‘피해경험유무’를 합산하여 등간

6) 피해유형에는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협박당하기’, ‘집단따돌림 당하기’, ‘심하게 맞기’, ‘성희롱(성폭행) 당하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기’ 등이 포함된다.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6가지 피해 중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아동들은 0점에서 6가지를 모두 다 경험해 본 아동은 6점을 얻게 되어 0점에서 6점 사이의 점수분포를 보이게 된다.

나.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앞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크게 개인성향 요인, 가족관련 요인, 상황적 요인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개인성향 요인은 자기통제력으로 측정하였고, 가족관련 요인은 부모와 동거여부,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 등 3가지 변인으로 측정하였으며, 상황적 요인은 일탈적 생활양식, 비행친구 등 2가지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1)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충동성, 순간만족성, 위험추구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서 ‘나는 내 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등 4개 문항으로 측정을 하였고, 분석을 위해 값을 역부호화(reverse recode)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2) 부모 비동거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친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0’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1’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3) 자녀 양육태도

자녀 양육태도는 부모로부터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경험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를 위한 문항으로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나는 부모

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로 구성하였다. 이 두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을 위해 값을 역부호화(reverse recode)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비폭력적)인 반면,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폭력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4) 부모 감독

부모의 감독은 총 4문항으로 자녀가 외출했을 때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돌아올지를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합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5) 일탈적 생활양식

일탈적 생활양식은 생활양식이론 및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와 비행의 원인으로 보는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비행환경을 가진 경우에는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탈적 생활양식을 'PC방 가기',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로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다'와 '있다'로 구분하여 체크하도록 하였는데, 분석에서는 이들 각각 '0'과 '1'로 재분류하여, 합산하여 등간척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이나 일탈을 저지르는 습관이 많다고 해석될 수 있다.

6) 비행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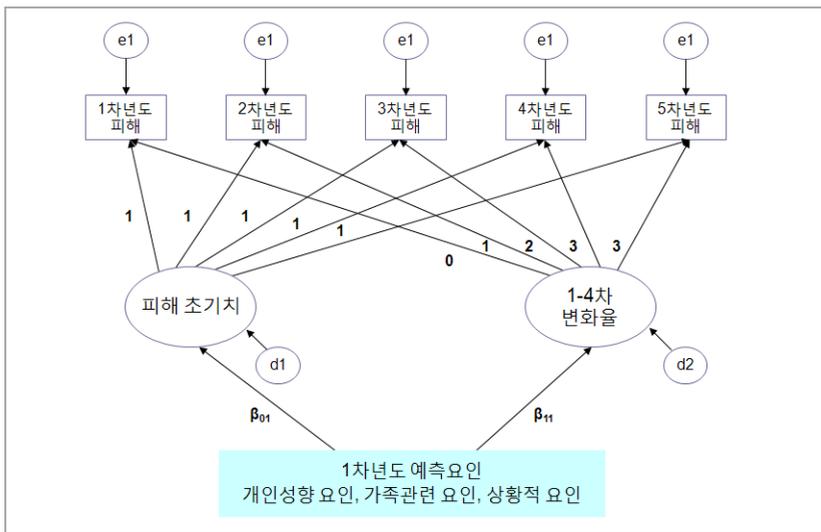
비행친구는 '친구들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 친구', '친구들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일부러 버스나 지하철요금을 내지 않고 탄 친구' 등 총 16가지 종류의 비행경험 유무를 합산하여 등간변수로 사용하였다.

3.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SPSS 12.0과 AMOS 5.0을 활용하였다.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등은 SPSS 12.0을 사용하였고, 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모형(SEM)의 틀 내에서 만들어진 잠재성장모형(LGM: 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반복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변인의 변화 경향에 관심을 가질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에 있어서 개인 간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잠재성장모형은 초기 값과 변화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변화에 대한 외부 변인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김선숙고미선, 2007). 따라서 아동범죄피해의 발달궤적을 나타내는 함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발달 궤적의 변화에 작용하고 있는 예측변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 2수준 분석모형



IV. 분석 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표 1>는 이 연구의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연속변수는 평균(M)과 표준편차(SD)로 표시하였으며, 명목변수는 사례수(N)와 비율(%)로 표시하였다.

〈표 1〉 독립변수의 1차년도 기술통계

자기통제력		자녀양육태도		부모감독		비행친구		일탈적 생활양식	
M	S.D.	M	S.D.	M	S.D.	M	S.D.	M	S.D.
3.70	0.76	8.87	1.62	3.42	0.95	2.22	2.48	3.14	0.39

<표 1>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분석대상 학생들의 가구월평균소득은 평균 약 305만원 수준이었고, 학생들의 아버지학력은 중학교졸업이하 5.7%, 고등학교졸업 43.3%, 전문대졸업이 9.6%, 대학교졸업이상 41.4%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학력은 중학교졸업이하 6.9%, 고등학교졸업 61.0%, 전문대졸업 7.6%, 대학교졸업이상 24.5%로 나타났다.

2. 피해의 발달궤적 설정(1수준 분석)

발전-생애과정범죄학(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에 따르면 연령과 비행율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행동특성이 변하고, 행동특성의 변화는 비행 혹은 범죄피해의 양상을 변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는 최근까지도 패널데이터와 같은 종단자료의 축적이 미흡하여 비행이나 범죄피해의 변화를 제대로 연구할 수 없었다. 다행히 KYPS 자료가 제공됨으로써 종단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패널 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하다

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발전-생애과정 범죄학에서 주장하는 비행이나 범죄피해의 변화 양상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의 설정기준이 모호하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5년 동안의 범죄피해의 변화에 가장 적합한 발달궤적을 도출하기 위하여, 교육 학제의 변화⁷⁾를 반영한 모형들을 구성해 보았다.

5년간의 피해변화모형은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1-4차년도 변화모형, 1-3차년도 변화모형, 3차년도 변화시작모형, 4차년도 변화시작모형 등 여섯 가지 유형의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분석하였다⁸⁾.

〈표 4〉 범죄피해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모형	$\chi^2(df)$	NFI	CFI	RMSEA
모형1: 무변화모형	466.976(13)***	.524	.530	.111
모형2: 선형변화모형	129.908(10)***	.868	.876	.065
모형3: 1-4차변화모형	94.847(10)***	.903	.912	.055
모형4: 1-3차변화모형	138.515(10)***	.859	.867	.067
모형5: 3차변화시작모형	189.158(158)***	.807	.815	.079
모형6: 4차변화시작모형	252.273(10)***	.743	.749	.092

*** p < .001

- 7) 정혜원(2009a)은 연령에 따른 청소년비행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사회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단연구를 진행할 경우 교육 학제를 고려하여 비행이나 범죄피해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교육 학제에 따라 비행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노성호, 1992; 김준호 외, 2009; 정혜원, 2009b).
- 8)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로 구분된다. 절대적합지수 X^2 는 제안모델이 표본공분산행렬을 어느 정도나 예측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값이 작고, 확률값이 크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절대적합지수인 X^2 통계량은 표본크기가 매우 큰 경우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적합지수 중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를 중심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CFI, RMSEA, NFI는 표본의 크기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형의 복잡성이 다른(통계적으로는 자유도가 다른)모형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RMSEA(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는 표본크기가 상당히 큰 제안모델을 기각시키는 카이제곱통계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이다. 이 값이 0.05-0.08의 범위를 보일때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간주된다. 0.10이하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05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시키고, 0.01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라고 한다. 증분적합지수는 제안모델을 기초모델과 비교한 지수이다. CFI(비교적합지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0.0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NFI(표준적합지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0.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표 3>의 6가지 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⁹⁾, 5년 동안 피해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된 무변화모형(모형 1)은 다른 모형들에 비해 χ^2 값(466.976)도 매우 크고, 적합도 지수 역시 낮아 적절한 모형으로 보기 어렵다. 비행의 변화가 선형적이라고 가정된 모형 2의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 1에 비해 χ^2 값(129.908)이 많이 줄어들었고, 적합도도 많이 향상되었다. 다시 모형 2를 모형 3을 비교한 결과, 모형 3이 모형 2에 비해 χ^2 값(94.847)이 크게 줄었고, 적합도 지수는 향상되었다. 따라서 모형 2보다는 모형 3이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형 3과 모형 4를 비교하고, 다시 모형 3과 모형 5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과 모형 6을 비교한 결과, 가장 적합한 최종모형으로 모형 3을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으로 모형 3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대상 초등패널의 범죄피해의 변화가 선형적 변화를 보이다가 일정한 시점(중학교 1학년)이 되면 변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4차변화모형(모형 3)을 최종적인 분석모형으로 설정한 후 범죄피해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치의 평균은 0.319, 변량은 0.223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피해의 초기치가 학생들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5년간의 변화율의 평균은 -0.063으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변화율의 변량(0.017)도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범죄피해의 변화율이 학생들 간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9) 이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들이 중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 학제의 변화를 반영하여 몇 가지 가설적 의미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무변화모형은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모두 0으로 구성함으로써 전혀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한 모형이며, 선형 변화모형은 변화량의 요인계수를 0, 1, 2, 3, 4로 고정하여 5년 동안의 변화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한 모형이다. 1-4차 변화 모형은 변화량의 요인계수를 0, 1, 2, 3, 3으로 고정하여 1차년도(초4)에서 4차년(중1)까지는 변화하고 4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는 변화가 없다는 모형이다. 1-3차년도 변화모형은 변화량의 요인계수를 0, 1, 2, 2로 고정하여 1차년도(초4)에서 3차년도(초6)까지는 변화하고 3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변화가 없다는 모형이다. 3차 시작 변화모형은 변화량의 요인계수를 0, 0, 1, 2, 3으로 고정하여 1차년도(초4)에서 2차년도(초5)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3차년(초6)부터 변화가 시작한다는 모형이다. 4차 시작 변화모형은 변화량의 요인계수를 0, 0, 0, 1, 2로 고정하여 1차년도(초4)에서 3차년도(초6)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4차년(중1)부터 변화가 시작한다는 모형이다.

〈표 5〉 범죄피해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미지수(parameter)	평 균	변 량
초기치(intercept)	.319(.013)***	.223(.014)***
변화율(slope)	-.063(.005)***	.017(.002)***
초기치-변화율의 상관계수	-.884***	

() 안은 표준오차*** p<.001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884로 나타나 1차년도의 피해정도가 높을수록 피해의 감소(즉,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에 피해를 많이 당한 학생들의 경우 피해의 감소 속도(즉,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는 반면, 1차년도의 피해 정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피해의 감소가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구나 상관성의 크기가 매우 높게 나타나, 한 번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이후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초의 범죄피해사건이 후속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범죄피해의 ‘사건의존성’(event dependence/state-dependence)이론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Tseloni and Pease, 2003: 196). 달리 말해 상대적으로 최초 피해를 많이 경험한 학생일수록 이후에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우며, 피해를 많이 당한 집단과 피해를 적게 당한 집단의 피해경험의 발달궤적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피해의 변화에 대한 예측요인 분석(2수준 분석)

〈표 4〉에서와 같이 피해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모두 유의함에 따라 이들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고, 예측변인들을 투입하여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생의 피해 초기치는 다음과 같은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비동거, 자녀양육태도, 일탈적 생활양식, 비행친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태도는 범죄피해의

초기치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비행친구 그리고 일탈적 생활양식은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 폭언이나 신체적 폭력의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초기 피해의 정도 역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피해의 초기치가 높은 편이며,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그리고 술, 담배, PC방 출입 등 일탈적 생활 습관이 높을수록 피해의 초기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유추해 보면,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측면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범죄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가족의 문제가 청소년들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즉 비행친구를 사귀거나 일탈적 생활양식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최종적으로는 ‘가해-피해 중첩가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⁰⁾

〈표 6〉 범죄피해의 예측요인

	예측요인	피해의 초기치(intercept)	피해의 변화율(slope)
통제변인	성별	-.005	-.004
	부학력	-.019	.006
	모학력	.005	.004
개인성향요인	자기통제력	-.027	.004
가족관련요인	부모비동거	.240***	-.080***
	자녀양육태도	-.066***	.017***
	부모감독	-.012	-.003
상황적요인	일탈적생활양식	.181***	-.047***
	비행친구	.046***	-.014***

$\chi^2 = 254.81(df=38)***$, NFI = .938, CFI = .946, RMSEA = .045

*** p<.001

10) 이와 관련해 청소년들의 가해경험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가해-피해 중첩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적 생활양식이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가해경험이라는 명시적 변인을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른 한편, 범죄피해의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역시 초기치에 영향을 준 변수와 동일하게 부모와의 비동거, 자녀양육태도, 일탈적 생활양식, 비행친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모와의 비동거, 일탈적 생활양식, 비행친구는 범죄피해의 변화율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피해변화율이 음(-)의 값을 고려할 때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일탈적 생활 습관이 많을수록, 그리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감소속도(즉, 피해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피해변화율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력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피해의 감소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의 청소년이 피해경험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V. 논의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 초기단계에서 연령에 따라 범죄피해의 경험이 어떠한 변화의 패턴을 보이고, 이러한 변화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에서 검토된 미시적 요인(개인성향 요인, 가족관련 요인, 상황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피해경험이 연령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르는 5년 동안 범죄피해는 감소하다가 정체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의 범죄피해가 연령에 따라 감소하다가 중학교 시기가 되면 정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범죄피해와 관련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각기 다른 접근방식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만일 이 결과대로라면,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초기피해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개입을 통해 이후 피해경험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피해율이 정체되면서 만성적 피해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

이 있다. 물론 이 연구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 초기단계에서의 범죄피해의 변화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범죄피해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초등학교생들의 범죄피해 경험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년간의 평균 변화율은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변화율의 변량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범죄피해의 변화율이 학생들 사이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개인마다 범죄피해경험이 다를 수 있으며, 이후 피해경험의 발달양상도 학생들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시기(1차년도)의 피해정도가 높을수록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1차년도) 때 범죄피해를 많이 당한 학생들의 경우 그러한 피해경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는 반면, 1차년도에 범죄피해의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후에 다시 피해를 당할 가능성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최초의 피해를 많이 경험한 학생들일수록 이후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우며, 피해경험이 많은 집단과 상대적으로 피해경험이 적은 집단의 발달 궤적에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피해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의 초기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개인성향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기통제력이 높다고 해서 피해를 덜 당하거나 자기통제력이 낮다고 해서 피해를 더 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가족관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의 비동거와 자녀양육태도는 피해 초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가정, 그리고 가족 내 폭력적인 부모의 태도가 초기 범죄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상황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일탈적 생활습관 및 비행친구가 피해초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피해에 연루될 수 있는 환경에 자주 접할수록 피해경험의 초기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피해자 중첩성에 관한 논의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해자-피해자 중첩성은 생활양식이론에서 흥미로운 쟁점 중의 하나이며,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이미 지지된 바 있다(김준호, 1998; 노성호·이성식, 2003; 박순진, 2005; 2006).

넷째로 범죄피해의 변화율과 관련이 있는 변수 역시 부모와의 비동거, 자녀양육 태도, 일탈적 생활양식, 비행친구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일수록, 부모가 신체적·언어적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 가정일수록 학생들이 피해를 벗어나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피해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접근할수록 피해를 벗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죄피해의 변화율에도 개인성향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인적 성향요인보다는 가족관련 요인이나 상황적 요인이 청소년 초기단계에서 범죄피해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는 초등학교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범죄피해의 발달궤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른 범죄피해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대표성 있는 종단자료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및 변화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및 변화와 관련된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초기단계의 범죄피해의 발달궤적이 학생 개인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고, 이러한 범죄피해의 개인적인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성향 요인, 가족관련 요인, 상황적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그동안 비행이나 일탈원인의 미시적 요인들로 지적되었던 변인들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는 개인성향 요인, 가족관련 요인, 상황적 요인 중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인과적 모형과 그에

따른 상이한 발달궤적을 추정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러 가지 종류의 피해를 경험유무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의 빈도나 심각성 등 피해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기광도 (2002).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 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정연구, 제16권. pp. 7-27.
- 기광도 (2004). 범죄 및 피해의 중첩성에 관한 분석.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2호, pp. 269-305.
- 김선애·김준호 (1995). 부모의 통제유형과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6권 2호. pp. 1-15.
- 김선숙·고미선 (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 5-29.
- 김준호 (1998).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와 가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집. pp. 109-131.
- 김준호, 노성호 (1989). 사회계층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형사정책, 4호. pp. 197-237.
- 김준호, 안호용, 김선애, 김선업 (2002). 가족의 구조·기능과 청소년비행.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1호, pp. 225-267.
- 김준호, 정혜원 (2009). 부모애착과 비행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분석.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pp. 126-148.
- 노성호 (1992). 한국의 청소년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 노성호 (2005). 청소년의 비행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검증.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 583-605.
- 노성호 (2007). 일탈적 생활양식과 청소년 범죄피해: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pp. 257-284.
- 노성호, 이성식 (2003). 청소년의 폭력범죄피해요인에 관한 일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2호. pp. 27-52.
- 민수홍 (2004).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및 피해경험. 제1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 289-312.

- 민수홍, 박영실 (2006). 청소년의 범죄피해경험: 자기통제이론의 적용. 제3회 한국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 317-333.
- 박순진 (2005).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피해-가해 연계.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pp. 241-268.
- 박순진 (2006).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피해-가해 연계의 변화.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pp. 47-88.
- 박현수 · 김준호 (2008). 비행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비행친구와의 친밀성과 비행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1호, pp. 327-356.
- 신희경 (2006). 가해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해/피해 청소년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1호, pp. 297-323.
- 이춘재, 곽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 회지: 발달, 13(1): 65-80.
- 정소희 (2009).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 pp. 31-64.
- 정혜원 (2009a). 인생사건이 비행시작에 미치는 영향: 보호요인 및 위협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 정혜원 (2009b). 사이버비행 지속에 미치는 영향: 사회유대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 이론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16권 제4호, pp97-112.
- Akers, R. L., Krohn, M. D., Lanza-Kaduce, L., and Radosevich, M. (1979).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 specific test of a gener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3: 114-153.
- Burgess, R. and Akers, R. (1966). A differential association-reinforcement theory of criminal behavior, Social Problems, 14 128-147.
- Cohen, L. E. and M.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05-524.
- Free, M. D., Jr. (1991).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oken home and juvenile delinquency: A critique of current literature. Deviant Behavior: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2: 109-67.

- Gottfredson, M. R., and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ndelang, M., Gottfredson, M., and Garo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Personal Victimization*. Cambridge, Mass: Ballinger.
- Jensen, Gray and David Brownfield. (1986). Gender, lifestyles, and victimization: beyond routine activity theory. *Violence and Victims* 1: 85-99.
- Lauritsen, Janet L., Robert J. Sampson, and John H. Laub. (1991). The link betwee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Criminology* 29: 265-292.
- Loeber, R. and M. Stouthamer-Loeber.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In M. Tonry and N. Morris(eds), *Crime and Justice: a annual review of research* 7: 29-149.
- Matsui, Tamao and Yukie Tsuzuki. (1996). Long-term outcomes of early victimization by peers among Japanese male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79: 711-720.
- McDermott, Joan. (1983). Crime in the school and in the community: offenders, victims and fearful youth. *Crime and Delinquency* 29: 270-283.
- Meier, R. F. and T. D. Miethe. (1993). Understanding theories of criminal victimization, *Crime and Justice* 15: 459-499. edited by A. J. Reiss and M. Ton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ye, F. Ivan. (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John Wiley, New York.
- Owens, Laurence, Phillip Slee, and Rosalyn Shute. (2000). It Hurts a Hell of a lot.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1: 359-376.
- Tseloni, A. and K. Pease.(2003). Repeat personal victimization: 'Flags' or 'Boost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3(1): 196-212.
- Patterson, G. R. and Stout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Eugene: Catalia Publishing Company.
- Rankin, J. H. and L. E. Wells. (1990).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s and direct controls on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140-165.
- Rankin, J. H. and R. Kern. (1994). Parental attachment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2: 495-515.
- Rankin, J. H. (1983).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Social Problems* 30(4): 466-479.
- Reiss, Albert J. (1951). Delinquency as the failure of personal and social contro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 196-207.
- Singer, Simon J. (1981). Homogeneous victim-offender populations: A review and some research implication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Delinquency* 72: 779-788.
- Sutherland, Edwin H. and Donald R. Cressey. (1974). *Criminology*, Lippincott.
- Wells, L. E. and J. H. Rankin. (1988). Direct parental control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6: 263-285.
- Wells, L. E. and J. H. Rankin. (1986). The broken homes model of delinquency: Analytic Issu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3(1): 68-93.
- Wilson, H. (1980). Parental Supervision: A neglected aspect of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3): 203-235.
- Wilson, J. Q. and Herrnstein, R. J. (1985). *Crime and Human Natur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The Changes of Victimization and The Predictors in The Early Adolescence

Jung, Hye Won* · Park, Seong 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victimization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might explain individual differences over time. For this study we used longitudinal data from 2004-2009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two major findings of the study by LGM(latent growth mode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adolescent victimization has decreased for five years but there were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initial level and the rate of change in their victimization. This finding shows that a student has more victimized experiences of the past, (s)he is expected to be victimized in future. Second, family factors and situational factors are predicted both the initial level and rate of change in adolescent victimization. Specifically, 'living without parents', 'parents' violent rearing for their children', 'delinquent peers', 'deviant life styles' affect the rate of victimization an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These findings provide support for the importance of family factors and situational factors to prevent adolescent victimization.

❖ Key words : adolescent victimization, developmental trajectory, latent growth model, panel study

투고일 : 2010. 2. 4 / 심사(수정)일 : 2010. 3. 3 / 게재확정일 : 2010. 3. 26

* Lecturer, Dong-Eui University, Ph.D. in Sociology

** Ph. D. Candidate, Sociology, Korea University